

# 완도군 유통업체 4곳과 전복 할인행사

고수온·소비 부진 '이중고' 양식어가 돕기 대대적 캠페인 예비비 편성 전국 774개 점포 판매



완도전복.

이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활전복(12~14미)을 완도지역 전복 유통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며 전국 각 매장의 판매 목표량은 70여에 달한다. 롯데마트는 전국 105개 점에서 '초특가 주말 3일장'을 열고 전복을 할인판매 중이다. 이랜드 김스클럽은 26개 점에서 '완도군과 함께 하는 활전복 특가 행사'를 진행중이며 GS THE FRESH 전국 503개 점과 이마트 전국 140개 점에서도 완도 전복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전복을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길 바란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소비가 전복 생산 어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아이 돌봄 온 마을 함께해요"...해남군 공동육아방 호응

해남읍·어불도 등 4개소 운영 상반기 1·2호점 5700여명 이용



해남군이 개최한 공동육아나눔터 달란트 시장 모습.

해남군이 공동육아방 운영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돌봄인프라 구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동육아방은 부모 등 보호자들이 품앗이 등을 통해 아이를 함께 돌보고,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육아나눔 공간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남 코아루아파트에 1호 공동육아나눔터가 조성된 이후 지난해 해남가족어울림센터가 개소하면서 센터내 3층에 2호점이 들어섰다. 또 섬지역인 어불도에 군비를 지원, 어불마을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공동육아방이 설치됐으며,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남읍 구도심에 아이랑 사랑방이 조성됐다. 공동육아나눔터 1·2호점은 올해 상반기에만 돌봄과 육아 품앗이, 상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5700여 명이 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공동육아방 운영이 가족친화 돌봄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이 한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공동육아방을 통한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은 지역 돌봄 공동체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역량강화를 통해 더 나은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신안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전국 1위

상반기 목표액 124% 달성

신안군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신안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인 2543억원의 124%인 3174억원, 소비·투자분야 목표액인 994억원의 170%인 1689억원을 각각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신안군은 섬으로 이뤄진 자치단체로 겨울철 기상악화로 연간 섬지역 교통 통제 일수가 100여 일에 이르는 매우 열악한 자연환경과 방파제 사업 등 대형 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인허가, 공유재산 심의,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점검·이행해 대규모 사업들의 신속한 계약

과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속적인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사업을 특별 관리하는 등 집행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려운 재정 환경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전 직원이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해 군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lesse@kwangju.co.kr



# 전남 장애인 생산품 구매활성화 업무협약

생산품판매시설·자원봉사센터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라남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전남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허강숙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장, 박용규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서 작성, 현판전달, 단체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사진> 양 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판매 활성화와 지역사회 복지연계 협력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촉진 협력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24 전국 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 유니폼

을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해 제작했으며 우수한 제품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성을 증진 시키고, 지역 상생을 통한 성공적인 체전 지원에 기여했다. 허강숙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전남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전라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및 판매 활성화 등의 지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장애인생산품의 가치를 적극 알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전남판매시설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의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의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영암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

영암군이 2024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사진)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전남형 청년공동체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공동체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영암군은 발대식에 앞서 공개모집으로 총 41명이 참여하는 7개 청년공동체를 선정했다. 이들은 ▲한국·베트남 미식 문화 ▲영암군 학생 교육프로그램 ▲특산물 활용 디지털 ▲지역 생태 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전통주 특산품 ▲영암 주제 창작곡 제작·공연 ▲지역 아동 복지카드 분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에서 청년공동체 구성원들은 자기 소개 시간을 갖고 정서진 '영암로컬' 대표 특강을 들었다. 정서진 대표는 지난해 전남형 청년공동체 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한 노하우를 사업 활동 방향, 예산 집행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청년이 지역을 무대 큰 꿈을 펼칠길 바란다. 영암이 청년문화의 산실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